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3호 【루계 제24961호】 주체104(2015)년 7월 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 진행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빛내이며 주체건축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새로 일떠서 준공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보장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이다.

비행장문주로부터 출발대기홀, 도착수속홀, 봉사홀 등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상업, 급양, 정보, 의료, 편의봉사에 필요한 각종 봉사망들이 편리하게 배치된 항공역사는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날로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예술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이 1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식장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박영식동지, 로두철동지와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해당 부문의 일군들, 종업원들, 가족들, 건설에 기여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순안구역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조국찬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의 관문이며 나라의 얼굴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떠선것은 사회주의문명국에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면모와 주체건축의 발전수준을 힘있게 과시하고 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는 커다란 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항공운수부문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유훈대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계적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무한대한 열정으로 수많은 형성안을 거듭 지도해주시고 설계와 시공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 각종 봉사시설들을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어떻게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선군혁명령도의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일군들의 심장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시고 세계적인 안목과 식견을 틔워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건설을 기백있게 내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항공운수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과 열렬한 애국의지, 불면불휴의 로고의 결정체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열풍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의 일각에 우뚝 일떠선 항공역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면서도 새 세기의 요구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졌다.

특히 건물외벽에 우리 민족의 기상과도 같은 백호가 형상되고 조선식지붕의 멋이 살아나며 세계적추세가 반영되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이 잘 나타나고있다.

모든 봉사망들이 최고의 높이에서 시공되고 려객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배치되였으며 운수수단까지 충분히 마련되여 국제비행장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결사관철하는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기초공사와 내외부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전무결하게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맡은 대상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로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락원으로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3 면 으 로 계 속

당앞에 결의한 1단계전투목표 빛나게 점령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두달동안 7만 4 000㎥이상의 언제콩크리트타입 진행, 물길굴 전구간에서의 상부피복공사 결속, 1 000여m의 물길굴바닥피복공사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자랑찬 승리의 함성이 울려퍼지였다.

현장련합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두달기간에 7만 4 000㎥이상에 달하는 언제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여 1호언제를 지난 4월말에 비하여 평균 10여m나 장성시키였다. 2호물길굴공사장에서도 지난 6월 21일까지 전구간에서의 상부피복공사를 끝낸데 이어 바닥피복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여 벌써 1 000m이상을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1호언제콩크리트타입은 81%이상, 2호물길굴피복은 83%계선을 돌파하였다.

당앞에 결의다진 1단계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한 이 기적적인 성과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과 창조적열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당창건 일흔돐전까지 1, 2호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채로 맡겨주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기어이 완공하여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불려줄 조국의 만년재부, 청춘의 기념비를 일떠세움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건설력사를 온 세계에 자랑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멀고 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데 이어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마음속에 애국충정의 열의, 보답의 의지를 천백배로 다져주고있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창건 일흔돐전까지 1, 2호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당면하여 1단계인 5월과 6월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통이 크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특히 기본공사대상인 1호발전소언제콩크리트타입량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그를 위한 혁명적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전투력이 강한 함경남도려단, 황해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을 언제좌우안의 중력부, 지지부콩크리트타입에 새롭게 인입하여 기본언제구간만이 아닌 언제 전구간에로 타입전선을 확장하였다. 물동량수송이자 곧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각 단위 수송부문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세멘트와 혼석수송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지휘부의 통일적인 작전에 따라 혼합물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책들도 세워졌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선별계통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설비보수와 능력확장공사를 혁명적으로 내밀어 혼합공장생산능력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언제좌우안에 10여대의 혼합기들을 새롭게 전개하여 중력부, 지지부타입실적을 부쩍 끌어올리도록 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각오안고 언제콩크리트타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언제우안지지부타입을 맡은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1단계전투기간 1만㎥이상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여 만년언제를 15m이상 장성시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한편 능력이 큰 혼합기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교대전투를 련속 들이대여 5월에 려단적인 타입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한데 이어 6월에도 5 000㎥이상에 달하는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였다.

황해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려단이 맡은 우안중력부콩크리트타입계획을 지난 6월 19일까지 두달이상 앞당겨 수행하여 백암전역에서 첫 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리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5개 언제블로크를 맡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련속타입을 들이대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만만한 투지로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단 40여일만에 6 300㎥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함으로써 수십m에 달하는 우안언제를 자기 높이에 우뚝 올려세웠다. 그 기세로 언제우안혼합물보장과제를 새롭게 맡은 이곳 려단에서는 짧은 기간에 혼합기들을 이동전개한데 이어 지휘부적인 작전에 따라 혼합물생산과 언제타입전투를 벌려 공사에 적극 기여하였다.

언제좌안지지부타입을 맡은 황해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6월 중순까지 두개의 언제블로크를 자기 높이에 올려세운 성과에 토대하여 23블로크타입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였다. 려단지휘관들은 자체의 힘으로 혼합물수송통로를 제작리용함으로써 불리한 조건에서도 타입속도를 부단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백두대지를 마음속에 안고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보내오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고무에 힘과 용기를 백배한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실정에 맞게 휘틀제작과 조립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줄기찬 타입전투를 벌려 려단앞에 맡겨진 언제콩크리트치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2중아치형의 기본언제건설을 맡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6월에도 5월에 비하여 하루 타입실적을 평균 1.9배이상 높이며 혁신을 창조하였다.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한 건설건재공업성의 책임일군은 성적인 힘을 집중하여 설비능력을 높이고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혁명적으로 세워줌으로써 사업소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사업소에서는 기본언제구간에서 타입전선을 여러개소로 넓히고 그에 따르는 혼합물운반속도를 높이기 위해 권양기설치, 설비개조를 적극 다그쳤다. 이와 함께 높아가는 언제우에 언제기중기를 이설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중기계직장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지난 6월 하순에 34시간, 24시간만에 3호와 1호언제기중기를 성과적으로 올려세워 언제타입속도를 부단히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도 백두대지의 언제건설장에 자기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칠 드높은 각오를 안고 휘틀제작과 조립, 언제콩크리트치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기본언제구간에서 매일 평균 1 000㎥이상의 콩크리트타입실적을 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2호물길굴공사를 맡은 평안북도려단과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물길굴피복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안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위훈창조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지난 시기보다 일전투목표를 2배이상 높이 세우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6월 4일까지 려단이 맡은 구간의 상부피복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그 기세로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 바닥피복공사량의 65%이상을 해제끼였다.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불리한 공사조건에 맞게 여러 구간에서 동시에 상부피복공사를 립체적으로 진행하여 타입속도를 부단히 높임으로써 지난 6월 21일까지 맡겨진 상부피복공사를 끝내였다. 그들은 대담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6월말에도 매일 30m이상의 바닥피복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목표수행기간 수송부문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이 충정의 운행길을 쉬임없이 이어나갔다. 하여 근 20만t의 세멘트와 골재 등 자재들을 공사에 지장없이 보장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의 지휘관들과 운전사들은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자동차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관리하면서 증송의 경적소리를 높이 울려 맡겨진 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의 운전사들은 자기들이 울리는 경적소리가 높아야 언제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자각을 안고 하루에도 왕복 수백리길을 달리고 또 달리며 물동량수송에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내각집중수송대와 각 도 수송경쟁에 참가한 운전사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수송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혼석운반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련합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 여러 대상건설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침수지역의 좁은철길이설공사에 참가한 철도성아래 각지 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6월 중순 전투초소를 차지하고 즉시에 전투에 달라붙어 다리와 우회차굴공사, 로반다짐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송전선공사에 참가한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철탑기초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칼바람에 꽃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당앞에 결의다진 1단계전투목표를 수행한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언제와 물길굴 등 전반적인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결사전, 총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지보도반

내 나라의 숲이여, 애국의 숭고한 뜻 전하며 무궁토록 설레이라

우리 조국의 산과 들이 더욱 푸르러가고있다.

위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천만군민의 불같은 애국열정에 의해 나날이 푸르름이 짙어가는 조국의 숲,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자기가 심고 가꾸는 한그루의 나무에서부터 애국이 시작되고 혁명가의 첫걸음이 떼여진다는것을 생활의 진리로 가슴에 안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들께서 몸소 나무를 심고 가꾸시며 대대로 내 나라의 푸른 숲에 담으신 고귀한 애국의 철리이다.

백두산위인들의 조국산천에 대한 끝없는 사랑, 후손만대의 번영과 빛나는 미래에 대한 숭고한 념원이 소중히 깃든 내 조국의 푸른 숲은 이 땅의 한그루 나무도 자기 살점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마음에서부터 참다운 애국심이 싹트고 혁명가의 인생관이 뿌리내리고 굳건해진다는것을 어제도 오늘도 숭엄히 전하고있다.

만경봉의 소나무를 가슴에 안으시고

만경대고향집에서는 지금도 《사향가》의 선률이 은은히 울리고있다.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념원이 소중히 비껴흐르는 《사향가》,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일만경치에서 백화만발한 조국산천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내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할 애국업적을 《사향가》는 오늘도 숭엄히 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열화와 같이 불태우신 불세출의 위인의 한평생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생각할 때 만경봉의 소나무숲부터 그려본다.

내 나라의 애국의 푸른 숲의 상징과도 같은 만경봉의 소나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아름다운 만경봉의 소나무를 가슴에 안고 사시였다. 만경봉의 소나무에는 조국산천을 열렬히 사랑하신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넋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이 만경대의 일만경치에 그리도 애틋한 정을 기울이는것은 이 유서깊은 성지의 한그루한그루 나무들에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피땀이 진하게 슴배여있기때문이다.

주체51(1962)년 3월초 어느날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고향마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만경봉의 소나무들은 우리 증조할아버님대에 심은것이 많다는데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만경대 남리로 이사를 오신것은 1862년경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만경대에 자리를 잡으신 후 마을사람들과 함께 만경봉에 소나무를 심으시면서 우리 나라가 금수강산으로 불리우는것은 산천이 수려하기때문이라고, 나무를 많이 심어 산천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자고 하시였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김응우선생님께서 그 시기 심으신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선생님께서 지니시였던 열렬한 애국의 정신을 전하며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김응우선생님의 남다른 조국애, 향토애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일제놈들때문에 만경대일대와 나라의 토지와 산림이 황폐화되는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가문에 고향과 조국의 산천초목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가풍으로 세우시고 고향집뜨락에서부터 실천하시였다. 선생님의 그 숭고한 애국열의는 만경대고향집을 둘러싸고있는 대추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추리나무, 들메나무, 향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여러 종류의 나무들에 그대로 어리여있다.

이런 애국의 혈통과 가풍속에서 성장하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기에 만경대의 한그루 소나무에도 애국의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담아 그처럼 유명한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실수 있었고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불러오기 위해 눈서리를 맞받아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면서도 수많은 나무들을 심으신것이리라.

조국의 산야에 심어진 그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은 김형직선생님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고있는 불타는 조국애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실 견결한 투쟁정신이 자양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되여 이 땅에 뿌리내린 《남산의 푸른 소나무》들이였다.

사실 나라를 통채로 침략자들에게 빼앗겨 자기 가정과 한몸의 운명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때 조국의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신의 안일과 향락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것을 가풍의 근본으로 여기신 만경대일가분들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숭고한 애국적장거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이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고도 할수 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고향땅에 대한 애틋한 정서가 담겨있었고 조국산천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흐르고있었으며 나라의 독립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락관의 정신이 높뛰고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국수—소나무에 대하여 말할 때면 남산의 푸른 소나무부터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가장 열렬한 애국의 정신을 가풍으로 간직한 만경대가문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의 애국의 넋으로 가꾸신 내 조국의 푸른 숲에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주체35(1946)년 3월 2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였다.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백두산위인들을 맞이한 모란봉은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끝없이 설레이는듯싶었다.

하지만 모란봉의 나무와 바위들을 일일이 보시며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어두우시였다. 명승지로 이름높던 모란봉이였건만 자기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던것이다. 황폐화된 모란봉은 말그대로 일제에게 짓밟혀 푸른빛을 잃은 내 조국산천의 축도였다.

상처입은 모란봉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옛날에는 모란봉에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모란봉의 나무를 란벌하였습니다라고 가슴아픈 심정으로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걸음을 옮기시다가 일군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모란봉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식수사업에 대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이렇게 지펴진 우리 나라 식수사업의 첫 봉화였다.

내 나라의 푸른 숲의 력사가 시작된 모란봉은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아름다운 고향 만경대와 잇닿은 조국산천의 한 부분이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보천보로 진군하실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모란봉의 자연경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을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만경대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만경대는 내가 자란 곳이요. … 동무들도 다 제 고향을 사랑하듯 나도 만경대를 사랑하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모두 고향사람들의 뜻과 지성이 깃들어있는것이요. 내가 심은 나무들도 지금은 퍽 컸을것이니까. 왜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소. …

이렇듯 어리신 시절부터 만경봉에 올라 여러가지 나무를 심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기에 밀영의 밤 대원들과 《사향가》를 부르실 때에도 자신께서 심으신 나무들이 자라고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그려보시였고 조국진군의 길에서 상처자리마냥 헐벗은 빈땅을 지나실 때면 만경봉의 소나무를 생각하시며 손수 나무씨를 뿌리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전의 그 모습으로 한평생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만경봉의 소나무에 담으시고 그 푸르른 모습으로 내 나라의 숲을 가꾸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나무를 심으시던 해방후의 그 봄날 그이의 페부깊이 스며든것은 만경봉의 싱그러운 솔숲향취였다. 산천도 불구름에 타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밑에 떨어진 씨앗들을 손수 모아 정성을 기울이시였고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것으로 알려졌던 수삼나무가 온 나라에 뿌리내리게 하시였다. 만경봉의 애어린 나무가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던 그 진정으로 전후복구건설시기 중요한 공사때문에 뽑히게 되였던 한그루 버드나무에도 뜨거운 애국의 정을 쏟으시였고 만경대의 일만경치를 늘 그려보시며 우리 나라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전변시키시기 위해 중앙식물원을 10여차례나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주체80(1991)년 4월 13일을 잊을수 없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경대기슭의 소년백화원에서 뜻깊은 식수를 하시고 나무를 심던 청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이 더욱 풍요하고 살기 좋아지라고 몸소 나무를 심으실 때 우리 수령님께서 그려보시였을 사회주의조국의 미래, 그것은 만년대계의 푸른 숲 강산에 우거지고 백화만발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더욱 번영할 인민의 락원, 후손만대가 복락할 영원한 김정일조선의 모습이였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과 한자리에 서시여 환히 웃으시며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내 조국의 앞날에 뜨겁게 얹으신 행복과 번영의 축원이 오늘도 만경대에서 울리는 《사향가》의 선률에 실려, 만경봉의 소나무의 푸르른 빛에 어려온 나라에 흐르고있다.

《푸른 산, 푸른 들!…》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불러오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는 말에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가 이렇듯 무겁게 실려있음을 깨닫게 된 일군들의 가슴에서는 커다란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다.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품어안는 김정일애국주의!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고귀한 넋을 안으시고 눈덮인 백두광야에 생의 첫 자욱을 찍으신 때로부터 근 70성상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열렬한 정을 기울이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의 총화인 이 애국주의보다 더 성스러운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것인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숭고한 인생관을 간직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쉬임없이 새겨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를 푸른 산, 푸른 들이라는 정다운 부름이 뜨겁게 전하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여름의 찌물쿠는 무더위를 헤치시며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였다. 어느 한 돼지공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푸른 숲에 싸여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공장쪽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잣나무와 이깔나무, 밤나무를 비롯하여 갖가지 나무들이 푸르싱싱한 주변풍치를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외우시였다.

《푸른 산, 푸른 들!…》

우리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애국의 세계가 유정한 시어와도 같은 푸른 산, 푸른 들이라는 표현에 실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숭엄히 안겨들었다.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푸른 산, 푸른 들에 어리여있는것인가.

일찌기 해방후의 첫 봄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였을 때에도 일제에게 상처입은 조국산천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리도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

전화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심으신 애어린 잣나무가 이제는 장자산의 울창한 숲과 더불어 하늘높이 솟아 설레이고있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는 장산에 오르시여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 자그마한 애솔포기에도 조국애의 고귀한 넋을 담으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저택정원에서 몸소 떠가지고 오신 세그루의 향나무를 유서깊은 칠골혁명사적지에 심으신 감동깊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푸른 숲, 푸른 들에 새겨진 하많은 사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소나무의 푸르름은 찬서리속에서 더욱 빛이 나고 애국의 진가는 시련속에서 검증된다.

고난의 나날의 피어린 체험을 겪은 사회주의조선을 끝끝내 어째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짓부셔버리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푸른 숲을 안고 걸으신 애국의 장정이기도 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어느해 식수절 군인들과 함께 조국의 대지에 나무를 심으시였고 병사들의 애국심이 깃든 다박솔초소며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여서는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으며 수림화된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너무도 만족하시여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주체86(1997)년 9월 어느날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한 구월산유원지를 돌아보실 때에도 유원지의 나무 한그루마다에 뜨겁게 슴배여있는 병사들의 깨끗한 마음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사회주의애국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싹트고 자라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라고, 자기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울수 있다고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지금도 내 조국의 푸른 숲, 푸른 들에 실려 김정일애국주의의 진폭이 큰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그 나날에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군인들과 함께 정을 기울이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는 애국심으로 만장약된 총대만이 자기 조국도 보위할수 있고 사회주의도 지킬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절세의 위인께서 병사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신 그 숭고한 애국의지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주었기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쏴올린 그날에 이 력사적사변의 주인공들인 과학자, 기술자들도 발사장주변에 밤나무모 300그루를 정히 심을수 있었고 선군의 길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애국의 자랑찬 결실들이 푸른 숲의 열매와도 같이 무성하게 주렁질수 있은것이리라.

인민군대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게 하시고 그것이 온 사회에 힘있게 흘러들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정치가 있어 내 조국은 강성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총대가 선도하는 애국의 고귀한 사상감정이 거목의 뿌리처럼 자리잡게 되였다.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여기시며 푸른 숲 우거진 강성조선의 래일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의 세계를 인민은 오늘날 더더욱 뜨겁게 새겨안는다.

중앙양묘장은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장군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유산이다.

교통조건이 편리할뿐만아니라 나무모를 키우는데 가장 유리한 명당자리를 고르고 골라 대규모의 나무모밭을 건설하도록 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돌격대를 보내주시여 양묘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정깊은 손길,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종자와 나무모까지 보내주시고 필요한 대책까지 다 세워주신 위대한 애국자의 뜨거운 그 사랑속에 나무모생산의 본보기단위,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중앙양묘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시고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산마다에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래일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큰일을 해놓은 이곳 로동계급을 널리 자랑하며 내세워주라고 교시하실 때 강성국가라는 거목의 위대한 뿌리가 되시여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김정일애국주의력사의 증견자인 조국산천은 얼마나 감격에 겨워 세차게 설레이였던가.

정녕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으시고 자신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의 박동으로 높뛰는 내 조국의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는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한생토록 절절하게 울린 《조국의 품》의 장중한 선률인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해주신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최대의 공적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천추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바탕을 둔 김일성민족의 신성한 애국의 기치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어버이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백두산식솔의 영원한 애국정신이다.

젊어지는 산천

한삽 또 한삽…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무를 심으신다.

조국력사에 뜻깊은 사변을 아로새길 이해의 식수절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지켜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정성껏 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늘 조국의 산과 들을 떠나 하늘에 사는 전투비행사들, 적들과의 결전에서 희생되여도 시신조차 대지에 못 남기는 선군조선의 영용한 붉은 매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이란 무엇이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그 어떤 연설이 아니라 나무심기라는 실천적모범으로 새겨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은 한평생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전변은 눈부신 비약의 속도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내 조국의 산들을 푸르게 하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애국의 열정에 떠받들려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세해전 식수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야전차는 고난의 나날에 상처입은 산들을 지나 전선길을 달리고있었다. 그위로는 나무모들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따랐다. 적들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과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로 하여 나라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천만군민의 보복일념이 하늘끝에 닿아있던 때였다.

험한 산발을 넘고넘으시여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무심을 장소를 더듬어 찾으시던 그이께서는 구뎅이를 미리 파놓은것을 보시고 이런것은 형식주의라고, 자기가 구뎅이를 직접 파고 나무를 심어야 식수라고 할수 있다고 일군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죄책감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에게 식수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라고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길에서 2012년의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는 이렇게 조국땅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내 조국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나무심기로 대답한것이다.

사연깊은 그 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지중지 심으신 나무는 푸르러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을 안아올 내 조국산천에 젊음을 주는 귀중한 재부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자주 외우시던 푸른 산, 푸른 들의 새 력사를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 잊지 못할 식수절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심혈의 세계는 얼마나 크나큰것이였던가.

적들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시여서는 지대적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고 월내도방어대를 현지시찰하시면서도 앞으로 원림설계를 잘하고 기후풍토에 맞는 나무들과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어 섬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조건이 서로 다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잔디품종을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고 중앙양묘장에 가시여서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만단사연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구수한 낟알향기가 대지에 차넘치던 어느해 9월말에는 일군들에게 작업복차림을 하도록 하시고 이번에 새 품종의 잔디를 다심어보고 그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치려 한다고 하시면서 앞장에서 일손을 다그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열정의 손길에 떠받들려 온 나라의 빈땅들이 새파랗게 돋아나는 새 품종의 잔디로 생신한 모습을 되찾게 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든것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산림복구전투라는 류례없는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애국의지가 원동력이 되여 올해의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480여만그루의 나무와 꽃관목이 이 나라의 산야에 뿌리내리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내 나라의 산천은 이렇게 수림화, 원림화의 푸른 시절을 맞이하고 우리 조국은 그 청청한 기상으로 《조국찬가》의 선률속에 끝없이 젊어지고있다.

애국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듯이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 혁명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이고 우리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내 나라의 숲이여, 절세의 위인들의 애국의 숭고한 뜻 노래하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욱 푸르러 설레이라!

본사기자 김준혁
본사기자 림정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르툼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혁명 2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30일 평 양

킨샤사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30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가 1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김영규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4(1975)년 7월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를 찾으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의 검덕광산과 룡양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하막장까지 들어가시여 광물매장량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을데 대하여서와 주체적인 광업발전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당의 크나큰 기대를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경기장건설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기계화를 실현하여 비료를 제때에 실어내는 문제로부터 현대적인 가구생산과 경기장의 지붕, 잔디형성, 관람석단수를 더 늘이는 문제, 서호수산사업소에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나라의 채취공업, 화학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40년간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는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려지고 생산능력이 부단히 장성하였으며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진 룡양광산은 백금산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치는 청춘광산으로 전변되였다고 말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화학비료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으며 물고기잡이와 랭동시설의 관리운영, 수산물가공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등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고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고 연, 아연을 비롯한 유색금속들과 마그네샤크링카, 경소마그네샤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생산공정들에서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높이 주체비날론과 화학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이미 꾸려진 축산과 양어, 남새와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함흥과학자살림집건설과 육아원, 애육원, 마전해수욕장개건공사 등을 앞당겨 끝내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 진행

1면에서 계속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억척같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의도를 하루빨리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비행장주변의 면모를 수도의 관문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모든것을 구상하고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건설혁명의 새로운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관리운영과 항공봉사영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행복의 래일》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준공테프가 끊기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농사를 함께 책임진 자각을 안고

구성시당위원회 일군들

구성시 양하협동농장에 달려나간 구성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며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물문제를 푸는것이 관건적고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시당위원회 부부장 신대영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농촌지원전투에 동원되여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 바쁘게 농장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어느 작업반이나 물이 발랐으나 제2, 8작업반들이 더하였다.

물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보장할수 없다고 본 그들은 제3작업반앞으로 흐르는 동문천의 물을 잡아 논에 댈 생각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당책임비서 박제근동무는 현지에 나와 실태를 다시한번 료해하고 지난 5월 17일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을 총동원하여 동문천의 보막이공사를 조직하였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에서 아침부터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부장 정세학동무와 배철수, 김호남, 리명석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보막이전투를 힘차게 벌려나갔다.

그들은 100여㎥의 강바닥 흙과 막돌로 보를 막고 그우에 나래를 씌운 다음 물이 새지 않게 다시 비닐박막으로 감싸주었다.

12시간의 전투끝에 그들은 깊이 50~60㎝에 폭이 2m나 되는 물도랑으로 물이 철철 흘러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2, 8작업반의 40여정보에 달하는 논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그후에도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농촌을 돕기 위한 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나갔다.

얼마전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동산협동농장앞으로 흐르는 대덕천의 강바닥파기공사를 진행할 목표를 내세웠다. 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바닥파기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농작물을 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고있다.

그들의 이런 투쟁기풍은 농장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안의 모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더 잘 지을 결의를 굳게 가다듬으며 당면한 영농전투를 본때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당의 믿음에 보답의 마음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매일 과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는 천성—성산천 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장에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평안남도청년돌격대원들은 대회장에서 돌아온 즉시 막장들에 들어가 한달동안에 굴진속도를 2배이상 높이고 500여㎥의 감탕을 처리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확실히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청년들의 충정의 열도는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이 높습니다.》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신창청년탄광을 비롯한 은산군지역에 있는 탄광들의 갱들에서 나오는 물을 많은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자연흐름식으로 배수할수 있게 물길굴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배수갱이 건설되면 지난 기간 물을 퍼내는데 리용하던 110대의 전동기와 뽐프, 2만 8 100m의 배관, 1만 5 700m의 케블을 쓰지 않고 나라에 큰 리익을 주게 된다.

평안남도에서는 방대한 배수갱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해제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펴고 도의 청년들로 청년돌격대를 뭇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배수갱관통을 빠른 시일에 끝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도록 하고있으며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공사장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공사장에 선전선동력량을 집중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으며 막장들에 전투적인 구호들과 표어들, 경쟁도표와 속보판을 게시해놓고 공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도청년돌격대지휘부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돌격대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굴진과 버럭처리, 감탕처리에 총력량을 집중시키고있다.

2.16청년결사대 대대장 송창록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과 평성시청년돌격대원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구간을 맡아안고 하루 3~4회의 발파를 들이대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그리며 수천길지하막장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는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여러가지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천공방법과 발파방법을 들이대면서 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석수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착암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드세게 암벽을 까내고있다.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막아나설 때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하루 최고 5.4m의 굴진속도를 기록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장에서 힘있게 내짚은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피끓는 심장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함영호동무와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청년돌격대원전원이 그 믿음, 그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사의 각오안고 수천척지하막장에 불굴의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무릎치는 물속에서 버럭광차를 밀고 감탕을 쳐내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하루평균 50광차, 최고 87광차의 버럭을 처리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7월에 들어와 수시로 감탕이 터지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청년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물길굴을 기어이 관통하고 당창건 일흔돐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드리려는 순천, 북창, 덕천, 개천, 안주지구의 탄전들에서 달려나온 청년돌격대원들의 드센 공격전으로 하여 굴진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불멸의 령도업적을 실천적사업성과로 빛내가리

대안젖소목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이미 꾸려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대안젖소목장을 찾았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푸른색 철판지붕을 떠인 여러동의 젖소호동이 규모있게 들어앉았는데 주변의 풀판에서 떼지어 흐르는 젖소무리들은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목장일군인 장명수동무가 우리에게 젖소목장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풍족히 공급하려면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1960년대 중엽 이곳에는 젖소를 기르는 전문축산기지가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나 첫 시기 목장의 형편은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 건물도 몇동 되지 않았고 젖소마리수도 적었으며 먹이문제도 걸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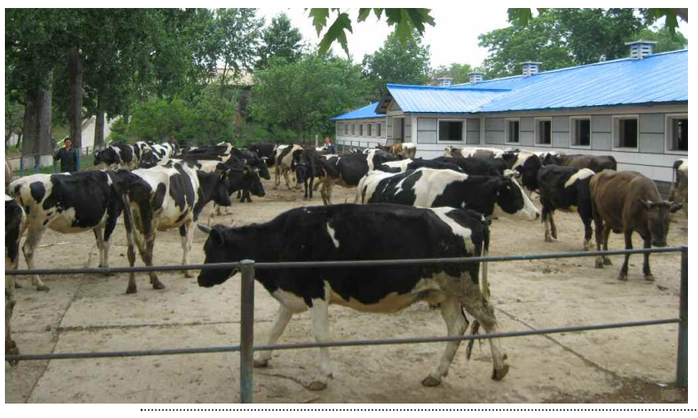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오시여 목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오랜 시간 목장을 돌아보시며 젖소의 품종을 개량하는 문제로부터 젖소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방도, 먹이기지를 잘 조성하며 먹이가공을 기계화할데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젖소우리도 돌아보시며 젖소 한마리당 한해 젖생산량도 정해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아오시여 목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목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산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며 먹이문제를 풀수 있는 묘안도 알려주시였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새 품종 젖소들도 보내주시고 목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은혜로운 손길아래 목장은 젖소마리수와 우유생산량에 있어서 나라의 손꼽히는 목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어제날 골짜기에 초막을 짓고 20여마리의 젖소로 첫걸음을 떼였던 목장은 오늘 백수십마리의 젖소와 6동의 젖소우리, 현대적인 젖가공실과 먹이가공실, 수백정보의 방목지와 먹이기지를 갖춘 대규모축산기지로 훌륭히 변모되였다.

매일같이 자동차들이 와 맛좋고 영양가높은 우유와 케피르를 싣고 공장과 주민지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달리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 목장에서도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사연많은 젖소들이 한마리, 한마리 줄어들 때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비경지를 개간하여 풀판을 넓히고 수십리 먼곳에서 달구지로 청사료를 날라다 먹이며 젖소들을 키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수십년간 젖소사양관리를 맡아 충실한 젖소들을 키우고 더 많은 젖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작업반장 리규상동무,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고 꾸준한 탐구와 실천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새끼젖소생산을 늘인 수의사 겸 인공수정사 김철만동무,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고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가고있는 젖가공공 리경희동무…

온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리의 젖소라도 더 충실히 키우고 한kg의 젖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받아안은 목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나무등걸을 파헤치고 두엄을 져나르며 땅을 걸구었고 국화풀을 심으며 먹이풀생산을 늘여나갔다.

오늘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남포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에게 매일 젖가공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중요공장, 기업소로동자들에게도 많은 량의 우유를 보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해마다 수십마리의 젖소를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실천적사업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주창선

알깨우기와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강계오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계오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오리고기생산을 늘이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년간 오리고기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공장에서는 먹이와 단백먹이를 넉넉히 확보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미 수백t의 먹이와 단백먹이를 마련한데 맞게 도의 여러 군들에 확보해놓은 먹이를 제때에 실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그리하여 창고들에 몇달분의 먹이와 단백먹이를 쌓아놓고 오리고기생산을 대대적으로 내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용먹이를 적극 리용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대용먹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균처리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매일 많은 량의 대용먹이를 생산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로동자들은 토착미생물채집과 확대배양에 의한 균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매달 많은 량의 니탄발효먹이를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먹이의 20%를 동물성단백먹이,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비롯한 대용먹이로 보충하고있다.

오리고기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종금작업반 로동자들은 암수비률을 정확히 정하고 어미오리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면서 매일 많은 알을 생산하여 알깨우기작업반에 보내주고있다.

알깨우기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알깨우기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며 새끼오리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15개에 달하는 호동에서 수만마리의 비육오리, 후보오리들이 한창 크고있는데 영양상태가 대단히 좋다.

최영희, 김연미, 김현순, 장성춘동무를 비롯한 생산1, 2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온습도보장, 공기갈이, 배합먹이주기 등 오리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마리당 증체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오리들의 비육상태에 맞게 선후차를 잘 정하고 고기가공작업반에서 주별, 월별로 오리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오리사양관리와 고기생산에 요구되는 물보장과 고기가공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배인 고명학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오리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적조건에 맞게 수의방역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계속 높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축산물생산을 4배로 늘일 목표

신천군 명석협동농장에서

벌방에 위치하고있는 신천군 명석협동농장에 축산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높뛰는 가슴에 받아안은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집짐승을 많이 길러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공동축산과 개인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일군들은 먹이를 적게 먹고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해결하여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에 공급하고 새끼낳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균처리에 의한 먹이가공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와 집짐승우리건설을 다그치는 등 축산업발전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작업반, 분조, 개인세대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축산을 잘하여 그 덕을 보고있는 제5작업반 비육분조의 경험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농장원 모두가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축산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축산작업반과 제5작업반 비육분조의 농장원들은 큰단백풀을 집짐승먹이로 적극 리용하면서 미생물에 의한 먹이가공방법과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여 축산물생산을 늘이고있다.

해마다 수십마리의 돼지를 자체로 길러 원아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10일유치원에서도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농장에는 모범축산가정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리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가정이 집짐승기르기에 앞장서니 농장원세대들에서도 오리, 닭, 게사니, 돼지기르기를 경쟁적으로 하고있다.

지금 농장에서는 가까운 몇해안으로 축산물생산량을 지금의 4배이상으로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염소떼 흐르는 산촌의 정서

평안북도 신의주육아원 축산기지를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동창군 두룡리에 자리잡고있는 신의주육아원 축산기지를 찾았다.

도토리나무와 밤나무숲이 무성한 산판에 수백정보나 되는 자연풀판과 인공풀판이 펼쳐져있었다.

양지바른 곳에 일떠선 합숙건물 건너편 산중턱을 따라 염소떼가 흐르는 모습이 산촌의 류다른 정서를 한껏 자아내고있었다.

2정보나 된다는 부업밭들에서는 파란 잎새를 한껏 펼치고 싱싱하게 자라는 강냉이포기들이 선들바람에 춤을 추는듯싶었다.

우리는 원장 김성옥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합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합숙에는 여러개의 호실들이 꾸려져있었고 청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비록 도시와 멀리 떨어진 축산기지에서 생활하지만 이곳 청년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윤택하게 꾸려나가고있음을 대뜸 짐작할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집짐승우리들을 돌아보았다. 수백마리의 염소를 기를수 있게 꾸려놓은 집짐승종합우리에는 수십마리의 돼지들도 우글우글하였다.

원장동무는 이곳 축산기지에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여러가지 산나물도 채취하여 육아원원아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자랑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곳 축산기지 책임자 백금철동무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해전 육아원일군들은 원아들을 위한 축산기지를 일떠세울것을 결심하고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아갔다. 그때 도인민위원회와 동창군의 책임일군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있는가고 하면서 축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적으로 맡아 풀어주었다. 신심을 얻은 육아원 종업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합숙건물들과 집짐승우리들을 일떠세웠다. 그리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여러 정보의 부업밭도 일구고 수십정보의 인공풀판도 조성해놓았다. 이들의 노력은 자랑찬 결실을 안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수백정보의 자연풀판과 인공풀판도 조성하고 집짐승우리들을 더욱 번듯하게 일떠세우며 물질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해종일 풀을 뜯은 100여마리의 염소떼가 앞서 걷는 소들의 뒤를 바싹 따르며 방목지에서 돌아오고있었다. 볼수록 흐뭇한 광경이였다.

우리는 방목지에서 돌아온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이곳 축산기지에 자원진출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였다.

다음해부터 수백마리의 염소떼가 온 산판을 뒤덮을것이라고, 그때에 꼭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방목지를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희망찬 래일을 말해주는듯 기타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청춘들의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특파기자 송창윤

토끼를 잘 길러 자랑많은 집

안변군 사평협동농장 리창수동무의 가정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에 가면 토끼를 많이 길러 소문난 리창수동무의 가정이 있다. 이 가정에서는 해마다 많은 토끼를 길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데 지난해에만도 근 1 000마리나 되는 새끼토끼를 생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데서나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습니다.》

농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이 집을 찾았을 때 마침 세대주인 리창수동무가 토끼들에게 한창 먹이를 주고있었다.

울타리를 쌓은 집뒤마당에 따로 문을 달아 집짐승들을 모아 키울수 있게 해놓은것이 인상적이였다. 해가 잘 비치지 않는 음지쪽에 여러개의 토끼우리가 있고 양지에는 수십마리나 되는 닭들을 키울수 있게 지은 닭우리와 돼지우리가 있어 마치 작은 축산기지를 방불케 하였다.

리창수동무의 안해가 토끼기르기과정에 얻은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토끼우리 위치를 잘 잡는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는 음지쪽에 토끼우리위치를 잡고 겨울에는 땅을 좀 파고 반토굴식으로 토끼우리를 짓거나 집벽에 붙여지으면 얼마든지 많은 토끼를 기를수 있다는것이였다.

토끼먹이보장도 독특하였다. 농장이 바다가에 위치하고있어 먹이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봄부터 돋아나는 풀들을 모조리 베여 장마철에는 물론 겨울에도 먹일수 있게 말리워 토끼먹이를 해결하고있었다. 바쁜 영농시기에는 밭김을 매면서 뽑아놓은 풀만 가져다 말리워 먹여도 토끼를 얼마든지 기를수 있다는것이였다.

이 가정에서는 축산에서 기본인 수의방역사업에도 힘을 넣고있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먹이를 마른 풀로 보장하고 4일에 한번씩 토끼우리를 청소하고 불소독하는것과 함께 축산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예방접종도 자주 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마리의 토끼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봄철에 들어와 한마리의 토끼가 최고 1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리창수동무는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는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을 많이 기르니 농장포전에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고 고기생산은 물론 수입도 전에 없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우리는 농촌의 모든 세대들이 이 가정에서처럼 닭과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리창수동무의 집을 나섰다.

특파기자 신천일

《처녀어머니》 장정화와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상봉모임 진행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대가정의 화원속에 한송이 꽃으로 피여난 로동당의 딸—강선땅의 《처녀어머니》의 아름다운 소행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와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상봉모임이 청년중앙회관과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처녀의 몸으로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훌륭한 미덕과 고상한 정신을 발휘하여 만사람을 감동시킨 《처녀어머니》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모임에서 장정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임무이며 바로 여기에 청춘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만을 안겨주며 어엿하게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젖먹이어린이까지 돌보면서 앓는 애를 업고 새벽길을 걷기도 하고 아이들의 음악공부를 돕기 위해 짬시간마다 기타를 배우던 이야기, 자기자신도 잊었던 생일상을 차려주며 고무해주던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민반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등은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자기를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는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긍지감과 청춘의 값높은 삶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칠 때 더욱 빛난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선군시대 공민이라면 너무나도 응당한 자그마한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할 마음을 담아 노래 《인정의 세계》를 뜨거운 격정속에 불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처녀어머니》란 말은 그 어느 나라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미덕은 오직 자기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며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우리 조국을 인간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불패의 청년강국으로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실천으로 새겨가는 애국의 자욱

강동군 삼등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김영철동무

위대한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애국충정의 뜨거운 마음을 바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 숭고한 지향을 안고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하게 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단위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강동군 삼등편의봉사사업소 남강작업반 로동자 김영철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남강로동자구 40인민반에 살고있는 김영철동무의 집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이 공표된 소식이 실린 당보를 펼쳐든 김영철동무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 인민이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에 새길수록 지난 기간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세차게 갈마들었다.

그날 밤 김영철동무는 적은 힘이나마 태양의 성지를 꾸리는데 이바지할 결심을 안해인 구향옥동무에게 터놓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자요.》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김영철동무와 가족들은 그 다음날부터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데 필요한 지원물자들을 준비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이들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애쓰고있을 건설자들을 그려보며 한가지의 지원물자라도 더 좋은것으로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웠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이렇게 정성다해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는 날이면 이들의 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는 기쁨으로 설레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김영철동무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리였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을 가슴에 새겨볼수록 자기도 무엇인가 그이의 구상을 꽃피우는 사업에 바쳐야겠다는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으로 달려갔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시민들을 위해 걸으신 포전길을 밟아보는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충정의 일념이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김영철동무는 가족들과 함께 건설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기록장에 이런 글을 새겨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김영철동무와 가족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애국충정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시 청년학생들과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성원들 상봉

평양시 청년학생들과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성원들의 상봉모임이 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문철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예브게니 랴쉔꼬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예브게니 랴쉔꼬단장은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폐부로 체험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의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 청년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모임참가자들은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정주시 신봉협동농장 제2작업반 부문당조직에서는 노래보급사업을 적극 벌려 작업반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당세포비서, 선동원,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새 노래들을 먼저 배우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예술적재능이 있는 작업반장 리봉식동무에게 분공을 주어 노래보급사업에서 앞장서도록 하고있으며 분조별노래경연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작업반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쉴참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농사일을 더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림영남

파키스탄대사관 성원들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싸이에드 하싼 하비브 주조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일 대성구역 조선파키스탄친선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농장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농장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그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안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김매기를 하였다.

쉴참에 손님들은 농장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고난을 이겨내고 기어이 강성국가를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곳 농장원들이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이런 인간생명의 기사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서있다

은률광산병원 과장 민은순동무가 바쳐온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뼈속까지 느끼고있다. 고고성을 터치면 이름보다 먼저 건강관리부가 만들어지고 돈 한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이 땅에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이야기도 세상에서 으뜸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또 하나의 감동깊은 서사시이다.

* *

은률군에 가면 누구나 명의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 보건일군이 있다. 은률광산병원 과장 민은순동무이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본사편집국으로 온 한통의 편지를 통해서였다. 우리 당이 키워낸 보건일군들에 의하여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민은순동무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온 한금철동무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이였다.

환자들에게 바친 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뜨거웠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치료방법으로 소화기계통은 물론 신경계통과 호흡기계통의 질병을 비롯하여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민은순동무에 대한 편지는 자못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광산병원에 도착한 우리가 민은순동무가 있는 치료실의 문을 여는 순간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에 들어서니 대여섯명의 환자들이 둘러앉아있었는데 한 환자에게 뜸을 놓으며 민은순동무가 무엇인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연방 터지는 웃음소리, 옆사람의 어깨를 쥐여박으며 배를 그러쥐고 웃는 환자들…

치료실이라기보다 화목한 한 가정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이채로운 광경이였다. 우리에게 한 환자가 말해주었다.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밝게 해주느라고 늘 저런답니다. 과장선생님의 유모아에 병이 절로 뚝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온 편지의 글줄이 떠올랐다.

《아마도 선생님의 귀밑머리는 저때문에 희여졌을것입니다. 거의 2년동안 고열에 시달리는 저를 붙안고 선생님이 흘린 눈물은 또 얼마였겠습니까. …》

편지를 써보낸 한금철, 그는 지금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귀여운 딸애까지 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하지만 7년전 그가 깊어진 병으로 생사기로에서 헤매일 때에는 누구도 그의 오늘과 같은 생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민은순동무 역시 얼굴이 창백하여 피기라고는 조금도 없고 의식조차 희미한 그를 보았을 때 가슴이 선뜩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환자의 친척들도 손맥을 놓고있었다.

같은 과의 의사가 담당하였던 한금철동무에 대하여 우연히 알게 된 민은순동무는 그를 애써 잊으려고 하였다. 병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치료가망이 거의 없는 금철이를 맡았다가 한생을 곧바로 깨끗하게 살아온 수십년의 의사생활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바로 이때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아들 철성이한테서 편지가 날아왔다.

군사복무의 자랑이 가득 차넘치는 아들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민은순동무는 대견하게 자라난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점차 침상에 누워있던 금철이의 모습으로 바뀌여지면서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철성이와 한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금철이의 중학시절모습도 떠올랐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금철이였다. 지금같은 때 부모가 있었더라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에 부지중 잊지 못할 추억이 가슴을 쳤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고학으로 의학공부를 한 민은순동무의 할아버지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죽어야 하는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피절게 목격하였다. 아버지에게서 늘 나라없는 식민지민족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민은순동무의 아버지는 해방후 골병이 든 사람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을 들먹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였다. 남조선땅을 가로타고앉은 미제의 악랄한 폭압정치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들씌워진 식민지멍에, 그속에서 더더욱 골병이 들어가는 인민들의 신음소리…

민은순동무의 아버지는 드디여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후 공화국북반부의 품에 안겨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이 제도를 위해 량심껏 일해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였다.

민은순동무가 의사직업을 선택하였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환자들을 혈육처럼 여기고 진정을 바칠 자신이 있느냐?의사를 직업으로만 생각할것 같으면 아예 단념하거라. 너희들은 무상치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고있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리 나라에서 의사란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하거라.》

…

민은순동무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금철이를 내가 맡아 치료하자. 설사 다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금철이를 외면한다면 한생 지울수 없는 량심의 허물로 나의 가슴속에 남을것이다.)

민은순동무는 이런 결심을 안고 금철에 대한 치료전투에 달라붙었다. 당장 급한것은 환자의 열을 빨리 떨구는것이였다. 민은순동무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치료경험과 기술로 두달이면 열을 떨굴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막상 치료를 시작하고보니 애로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엇보다 환자의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 항생제를 쓰기가 곤난하였다.

그리고 치료와 함께 영양보충을 따라세우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였다.

민은순동무는 입맛을 완전히 잃은 금철의 하루세끼 식사를 자기가 담당했다. 아침이면 금방 지은 밥이 식을가봐 남편의 밥상을 차려놓고는 따근따근한 밥그릇을 품어안고 병원으로 달려나왔고 저녁이면 금철이가 수저를 놓는것을 보고서야 병원문을 나섰다.

그러나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금철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민은순동무는 금철의 치료를 더욱 이악하고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

산에 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이듬해 봄 어느날 출근하여 금철의 열부터 재여보던 민은순동무는 손맥이 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며칠째 미열상태에 있던 금철의 체온이 또 오르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날 민은순동무는 너무도 안타까와 금철을 붙잡고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민은순동무를 보면서 간호원도 울고 환자들모두가 눈물을 흘리였다.

과연 금철이는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단 말인가. 모두가 이런 절망적인 물음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날 밤 민은순동무는 그동안 금철의 치료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다지였다.

다음날 민은순동무는 병원원장인 지희찬동무를 찾아갔다.

《원장선생님, 금철이를 대담하게 수술합시다.》

《자신있소? 금철이의 상태가 다른 사람같다면 몰라도… 수술하다가 만약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면 민선생의 한생에 오점이 남을수 있단 말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금철에게 적합한 수술방법과 대책들이 세워졌다. 병원의 의료집단이 한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떨쳐나섰다. 집단의 지극한 정성으로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민은순동무는 금철에 대한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그 나날 그가 참고한 의학잡지들과 고려의학서적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민은순동무의 정성에 깊이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금철의 치료를 적극 도와나섰다. 은률군의 한 일군은 금철의 치료에 좋은 비둘기를 가져다주었고 민은순동무에게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금철의 영양회복에 좋은 닭곰을 비롯한 갖가지 보약들을 안고 찾아왔다. 당시 간호원이였던 박영순동무는 금철에게 자기의 피를 뽑아넣어주었고 과일군과 평양에서까지 그의 치료에 좋은 귀한 약재들과 보약들을 마련해주었다.

민은순동무의 눈물겨운 정성과 집단의 극진한 보살핌속에 마침내 금철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금철의 건강은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러던 어느날 민은순동무의 아들 철성이가 표창휴가를 받고 왔다. 오래간만에 집에 온 아들과 회포도 나누고 자기 손으로 갖가지 음식들도 차려주고싶은것은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일것이다. 그러나 민은순동무는 그 마음을 가슴속깊이 묻어둔채 금철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낮과 밤을 보냈다.

그날도 민은순동무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잠간 집에 들리였다. 그때 마침 민은순동무에게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과장선생님이 금철이를 치료하느라 퍽 축갔다고 하면서 닭곰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민은순동무는 닭곰을 그냥 받을수가 없었다. 금철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던것이다.

《철성아, 내 이제 왕진을 가야 돼서 그러는데 이 닭곰을 금철이에게 가져다주거라.》 하고 말하는 민은순동무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어리였다.

어머니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철성이는 《예, 알았어요. 내가 나타나면 아마 금철이가 너무 반가와 자리를 차고 일어날거예요.》라고 하고는 싱긋 웃어보였다.

민은순동무는 그러는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였다.

《고맙다, 철성아. 내 마음을 리해해줘서. 참, 생각나니? 네가 6살때 나와 함께 왕진을 갔다가 그 집 아이가 철성이가 뜸 안뜨면 자기도 안뜨겠다고 생떼를 부려서 할수없이 네가 생뜸을 뜨던 일을 말이다. 난 그때 눈물이 가랑가랑해있으면서도 따갑지 않다고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철성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럴가 하고 생각했다. 철성아, 금철이를 빨리 치료해서 혁명초소에 세우는것이 바로 어머니를 돕는 일이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금철을 위해 기울인 민은순동무의 정성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그로부터 몇년후 민은순동무와 고마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병을 완전히 고친 금철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나날 민은순동무가 금철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준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금철의 결혼상도 물론 민은순동무가 차려주었다. 병원원장 지희찬동무와 광산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금철의 새살림살이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그쯘히 갖추어주었다.

뜻깊은 결혼식날 민은순동무는 말하였다.

《금철아, 뜻깊은 오늘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섭섭해말아. 나와 우리모두가 언제나 네곁에 있단다.》

지금 한금철은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혁명초소에서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한금철동무를 소생시킨 이야기는 민은순동무의 수십년 의사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범상한 이야기일뿐이다. 그에게서 치료를 받고 혁명초소에 다시 선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피롭히던 병을 털어버리고 그늘이 졌던 가정에 행복의 꽃을 더 활짝 피운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마다 민은순동무는 말하군 한다.

《제가 고맙습니까,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고마운것이지요. 그러니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우리 더 많은 일을 하자요.》

* *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그것은 곧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인간사랑의 정책이며 그 정책을 불같은 헌신과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인간생명의 기사들인 우리의 인민보건일군들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책과 우리의 미더운 보건일군들이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제도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는것이다.

리신향

행복이 넘치는 강산에 오늘도 메아리치는 피의 절규—천백배로 복수하라

태탄땅에 서린 피맺힌 원한

만경대구역 축전2동 19인민반에서 사는 리순애녀성이 들려준 이야기

태탄군의 속달산기슭에는 애국자묘라고 씌여진 비석이 세워져있다.

이곳에는 가렬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태탄군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놈들과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학살된 100여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유해가 안치되여있다.

이들속에는 만경대구역 축전2동 리순애녀성의 어머니와 두 동생의 유해도 있다.

한날한시에 어머니와 두 동생을 잃고 사형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리순애녀성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어떻게 태탄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하였는가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산 증견자이다.

하다면 당시 8살의 철부지소녀였던 리순애녀성의 가슴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그날의 피맺힌 체험은 과연 어떤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친놈들이며 두발가진 승냥이들입니다.》

1950년 10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던 어느날 미제는 태탄땅에 피로 얼룩진 더러운 군화발을 들여놓았다.

놈들은 당시 량곡창고로 리용하던 건물에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다.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구월산을 찾아가던 순애도 《빨갱이숙청》을 부르짖으며 미친개처럼 돌아치던 《치안대》놈들과 맞다들려 거기로 끌려갔다.

건물안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 어린이들이 갇혀있었다.

이곳에 갇혀있는 동안 순애의 눈앞에는 매일, 매 시각 몸서리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위돌로 잔등을 눌러놓고 생매장해죽이고 배에다 쇠말뚝을 박고 끈을 매여 끌고다니다 죽이고 어린아이의 온몸을 인두로 지지고지져 가드라들어 죽게 하는 등 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놈들은 순애의 어머니인 조선비녀성도 끌어내였다.

놈들은 《네 남편이 전선에 나가고 네년도 전선원호사업에 앞장섰으니 악질빨갱이를 그저 죽일수 없다. 빨갱이들의 군복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껄이면서 야수와 같이 달려들어 조선비녀성의 손톱,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두눈을 도려내였으며 그의 가슴에 시뻘건 인두로 《빨갱이년》이라고 새겨넣었다. 몇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린 조선비녀성은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순애의 손목을 꼭 잡아쥐고 이렇게 말하였다.

《순애야, 너만이라도 꼭 살아서 피맺힌 이 원쑤를 기어이 갚아야 한다.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되면 속달산너머 범골에 사는 큰어머니집을 찾아가거라.》

놈들은 조선비녀성도 성차지 않아 8살 철부지소녀인 순애를 고문장에 끌어내였다.

놈들은 《이 빨갱이계집애야, 창고안에서 만세를 부르고 회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놈이 누군지 대면 색동저고리도 주고 너만이라도 여기서 내보내주겠다.》라고 지껄였다. 순애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자 놈들은 순애의 두 무릎사이에 나무토막을 끼우고 머리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순애와 같은 철부지어린이들에게도 이처럼 악착하기 그지없는 고문을 들이대였다.

이렇게 인간백정들의 치떨리는 만행은 두달이상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던 12월 어느날 창고로는 새까만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쓴 놈이 들어와 미국은 좋고 공화국은 나쁘다는 내용의 악선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놈은 《오늘 직승기를 타고 미국사람들이 이곳에 또 내렸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화국을 반대하고 꽃다발을 들고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석방시켜 편안히 잘살게 해주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지껄였다.

이때 앉아있던 한 당원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 《당장 나가라, 이 미국놈의 졸개야. 네놈들이 아무리 개소리를 줴쳐도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화국만을 따를것이다.》라고 웨쳤다.

그러자 창고안의 여기저기에서 일제히 분노의 함성이 터지고 놈들을 향해 신발들이 날아갔다. 고문으로써도, 회유와 유혹으로써도 더는 저들의 개꿈을 이룰수 없게 된 원쑤놈들은 그날 저녁 창고문을 왈카닥 열어제끼더니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였다.

순애도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끌려나왔다. 놈들은 감옥마당에 준비해놓았던 쇠줄들과 새끼줄로 사람들을 10명씩 묶기 시작하였다. 순애는 어머니와 갈라져 아이들과 한줄에 묶이웠다.

원쑤놈들은 사람들을 강기슭에 세워놓고 기관총몰사격을 들이대여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하루밤동안에 100여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모두 학살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불렀다. 그때 순애는 총소리에 기절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후 그는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원쑤놈들에게 일곱번이나 붙잡히면서 속달산을 넘어 범골에 있는 큰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도 뒤쫓아온 《치안대》놈들에게 또다시 붙잡힌 순애는 재진격하면서 마을을 해방한 인민군대에 의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지만 리순애녀성의 가슴속에는 태탄땅이 피로 물들었던 그날의 사형장과 애국자들의 최후의 웨침소리, 원쑤놈들이 갈행한 몸서리치는 만행들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리순애녀성은 처녀시절부터 70고령에 이르는 수십년세월 자기가 겪은 피맺힌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계급교양사업에 헌신하고있다.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 자기처럼 피어린 력사의 증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태탄땅에서와 같은 원한의 력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사기자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복수의 일념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황해북도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단상 피끓는 심장

백사진,

강원도계급교양관의 벽면에 새겨진 한 애국자의 이름이다.

그는 당시 평강군의 한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다.

미제승냥이놈들과 계급적원쑤들은 그의 머리에 대못을 박고 쇠갈구리로 두눈을 파내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피비린내나는 인간도살장에 울려퍼진것은 목숨을 구하려는 구차한 애원이나 뼈저린 아픔을 호소하는 신음도 아닌 추상같은 웨침이였다.

《이놈들아, 공화국은 내 심장에 살아있다!》

낮이나 밤이나, 앉으나서나 공화국을 안고 살았을 심장,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삶에 대한 애착보다 공화국에 대한 사랑으로 높뛴 심장!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앞에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이 조국력사에 아로새긴 또 한명의 애국자 백사진동지의 피끓는 심장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그 세찬 박동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그 심장의 맥동을 따라 나의 심장도 더 세차게, 더 뜨겁게 높뛰는듯.

애국자의 그 심장이 어찌 고동을 멈추었다고 하랴. 그 심장은 오늘도 수천수만의 심장앞에서 살아높뛰며 애국과 신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모든 심장들에서 혁명의 붉은 피가 더욱 용용히 솟구치게 하나니.

정녕 그것은 수십년 아니 수백수천년이 흐른대도 절대로 고동을 멈추지 않을 열혈의 심장, 영원히 살아높뛸 애국의 불타는 심장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수산땅의 원혼들

아이들의 원한서린 연자방아와 난로

또 하나의 증오와 복수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력사의 땅 수산리,

수산땅에서 무참히 숨져간 수많은 원혼들의 절규에 귀기울일 때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저지른 치떨리는 어린이학살만행의 참혹한 광경들도 생생히 떠오른다.

《…놈들은 홍기행농민이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그의 온 가족을 멸살시키고 무서워 방구석에 움츠리고있던 7살 난 딸마저 마당에 끌어내여 알몸으로 발가벗겨서는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에 올려놓고 망돌을 굴려 무참히 깔아죽였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되새기느라면 몸서리치는 그날의 광경이 가슴아프게 사무쳐온다.

갈퀴같은 손으로 발가벗기운 어린이를 연자방아우에 우악스레 붙들어놓고 육중한 연자돌을 사정없이 굴려대는 살인마들,

제땅에서 제손으로 심어가꾼 곡식을 찧으며 연자돌의 무게조차도 행복의 무게로만 여겼을 농민들이 과연 그 연자돌밑에서 한 소녀의 뼈가 바스라지고 살점이 짓이겨질줄 꿈엔들 상상이나 해보았으랴.

짐승도 낯을 붉힐 귀축같은 만행이 어찌 연자방아에만 서려있는것이랴.

지금도 귀기울이면 뼐젖게 단난로우에서 터져나오던 4살 난 어린이의 새된 울음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어린이의 연한 살이 시뻘건 철판에 닿는 순간 자지러지게 터졌을 비명소리, 그리고는 아마도 불시에 멎었을 섬약한 심장의 박동,

모름지기 그 동심에도 동지섣달 해저물도록 뛰여놀다 들어서면 제일 그리운것이 따스한 온기였으련만 생의 불꽃이 꺼지는 마지막순간에만은 살인마들의 소름끼치는 낯짝과 함께 그 난로가 가장 저주로운것으로 공포어린 망막속에 영원히 비꼈으리라.

저주로운 흉기와 인간살륙방법

어느 놈이든 사람잡이에 미친 놈들에게는 흉기가 따로 없었다.

수산리계급교양관에 전시된 곡괭이, 망치, 톱, 낫, 가래삽 등 살인흉기로 쓰인 로동도구들은 원쑤놈들의 살륙만행이 얼마나 간악하고 흉포한가를 말없이 고발하고있다.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수산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당원들과 열성농민들, 그 가족들의 머리를 곡괭이로 내리찍고 팔다리를 삽으로 난랑쳤으며 목화씨를 뽑는 토리개로 사람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등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못할 살륙만행을 수없이 감행하며 40여일동안에만도 이곳 주민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105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이뿐이 아니였다.

사람잡이에 환장한 놈들은 살인방법들까지 고안해내여 바꾸어가며 온 수산땅을 인간도살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의 머리에 끓는 물을 들부어 죽이고 온밤 찬물을 끼얹어 얼어죽게 하였으며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여 수수바자에 내친 야수들,

유리쪼각으로 산 사람의 두눈을 우벼내고 한 녀인의 머리를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아궁에 틀어박아 학살하고도 성차지 않아 어린 자식들의 옷을 벗겨 뜨락의 배나무에 묶어놓고는 장작낟가리우에서 불태워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흉악무도한 살륙방법들은 무려 100여가지에 달한다.

정녕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에도 그날의 원혼들의 피타는 절규가 서리서리 얽히고 맺혀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는 원한의 땅,

비록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피의 흔적은 생생하지 않아도 전시대에 놓인 유물 하나하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력사의 성토문이 되여 천추만대를 두고 전해갈 증오와 복수의 당부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오늘도 엄숙히 새겨주고있다.

장정철

변하지 않는 복수자의 과녁

낯익은 모습이였다. 버섯생산을 공업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희한한 버섯풍경이 펼쳐지고있는 속에 버섯과 함께 늘 그 이름이 함께 불리워지군 하는 교수이며 박사인 한경화녀성,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인 그가 숙천군계급교양관에 전시된 하나의 사진앞에 못박힌듯 서있는것이였다.

잠시후에야 인기척을 느낀 그가 눈굽을 훔치며 우리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가 사진속의 녀인이 누구인가고 묻자 그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전쟁때 원쑤놈들에게 학살된 저의 어머니입니다.》

녀박사는 65년전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듯 하였다. 당시 한경화녀성의 나이는 10살이였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녀박사의 어머니 김인애녀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시 평원군 조운면 갈산리녀맹위원장으로서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올망졸망한 네 자식을 거느린데다 임신중이여서 몸이 몹시 불편하였지만 김인애녀성은 자진하여 인민군군인들의 길안내와 식사보장을 맡아나섰다.

1950년 10월 하순 어느날 후퇴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식사보장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자식들과 함께 후퇴길에 올랐던 그는 얼마 못 가서 《치안대》놈들과 맞다들었다.

놈들은 악질빨갱이년을 잡았다고 너털거리며 몽둥이가 부러져나가도록 치고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고통을 주는 등 갖은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문건과 쌀, 군복을 숨겨둔 곳만 대면 살려주겠다는 놈들의 회유도 그의 지조만은 굽힐수 없었다. 놈들은 김인애녀성을 《치안대》본부로 끌어갔다. 놈들의 고문으로 한쪽의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형색을 알아보기조차 어렵게 되였지만 그는 오히려 눈물을 보이거나 동정하는 사람들을 고무하였다.

최후를 각오한 김인애녀성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지난날들을 회억하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이발로 물어뜯고 흘러내리는 피로 입고있던 치마폭에 《조선로동당 만세!》를 한자한자 썼다. 그는 소중히 간직했던 당원증을 맏딸의 손에 꼭 쥐여주면서 원쑤를 갚아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를 어느 한 산으로 끌어내여 질질 끌고다니면서 이제라도 제놈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지껄였다.

허나 김인애녀성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참다운 삶을 찾아준 조국을 배반할수 없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그에게 놈들은 이런 년에게는 총알도 아깝다고 줴치며 임신 여덟달이 된 그의 배를 식칼로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여 칼랑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28살 난 김인애녀성을 한길넘는 구뎅이에 처넣고 돌랑쳐 학살하였다. …

한경화녀성의 이야기는 끝났다.

허나 원쑤놈들에게 학살된 사람이 어찌 김인애녀성 한사람뿐이랴. 미제침략자들은 숙천강점 40여일간에만도 550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생매장해죽였으며 전주대에 목매달아죽이고 불태워죽이는 등 야수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한경화녀성은 자주 숙천땅을 밟아 어머니의 최후를 돌이켜보군 한다. 그때마다 그는 원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전세대들이 피로써 지킨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결의를 더 굳게 가다듬군 한다고 한다.

세월은 흘러도 복수자의 과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녁은 결코 총쥔 병사만이 겨누지 않는다. 한경화녀성과 같은 과학자들이 이룩하는 하나하나의 연구성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이 땅의 모든 비약과 혁신이 곧 복수자들의 과녁, 원쑤의 심장을 뚫는 총과 폭탄이다.

하기에 일흔이 퍽 넘은 오늘까지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오은별

비방중상은 대결을 고취하는 위험한 독소

지금 북남관계는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동족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는 괴뢰보수패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우리가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끌끌내 서울에 개설하였다. 한편 괴뢰들은 《대화와 압박병행전략》에 대해 운운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이며 긴장격화를 노린 고의적인 책동이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참을수 없이 도전하는 이런자들때문에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달하고 언제 어디에서 군사적충돌이 일어나 전쟁으로까지 번져질지 모를 매우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정부성명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현 파국적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 각계는 우리 공화국정부성명의 무게로 볼 때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남측당국이 말로만 《대화》를 떠들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백마디의 말보다 북남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 분위기조성은 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다.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우리 민족은 누구나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사활적인 요구와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전민족적인 사업으로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통일을 위한 자그마한 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살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로 전환시켜야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회피할수 없는 의무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으로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랑비할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이야말로 행동으로 자기의 실천의지를 민족앞에 검증받아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실지행동에서는 대화분위기를 공공연히 해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되였던 기념행사를 그 무슨 《정치성배제》니, 《순수한 교류》니 하는 부당한 조건부들을 내걸고 가로막았다. 북남선언들의 리행과 관계개선을 그토록 갈망하는 민족의 드높은 열기는 이렇게 남조선괴뢰당국에 의해 무참히 외면당하고 짓밟히고있다.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은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위험한 독소이며 전쟁발발의 근원이다.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고 그 무슨 《북핵위협》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당한 로선과 전쟁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드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무분별한 대결망동이야말로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깡그리 말아먹는 화근이다. 지난해에 우리의 사심없는 노력과 성의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괴뢰보수패당의 고의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과 《인권》모략책동에 의해 사라지고말았다.

문제는 괴뢰들의 악의에 찬 비방중상놀음이 북남관계의 완전파국을 조장하며 북침전쟁기운을 고취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괴뢰당국이 그 무슨 《대화와 압박병행전략》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우리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면서 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괴뢰들이 침략적인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 반공화국압박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는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의 가장 악랄한 표현으로서 그것은 북남대화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가뜩이나 첨예한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괴뢰패당은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써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고 저들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반공화국제재소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번에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것도 바로 그러한 책동의 연장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적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고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그 앞장에서 분별없이 날뛰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미친듯이 헐뜯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새 전쟁발발의 위험한 불씨이다.

현 사태는 북남대결기운을 고취하며 이 땅우에 대결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정체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남대결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괴뢰당국의 도발적망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가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괴뢰들은 더이상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는따위의 기만적인 타령으로 민심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대결광신자들의 롱락물이 아니다.

남조선괴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탄저균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가련한 주구들이 너절한 《인권》모략으로 자주로 존엄높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로 강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를 어째보겠다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장 비참한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가는 대결광신자들의 도발적망동을 우리 민족은 용서치 않을것이다.

만일 괴뢰패당이 빈말을 모르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계속 대결정책에만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그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박 철 준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위험한 행위

최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새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력사적사변》으로 광고하고있다. 미에네르기장관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저들을 핵전파방지의 《수호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기둥》으로 묘사하였다.

실로 개탄스러운 광대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1970년대에 효력이 발생한 후 지난해에 만기된 미국남조선《원자력협정》에는 남조선이 우라니움농축과 핵연료재처리를 진행하는것을 금지한다고 되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한 《원자력협정》에는 괴뢰들이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 원자력기술수출 등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핵문제에서의 이중기준의 극치로서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제창하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범죄적정체를 또다시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핵정책에서의 미국의 이중기준이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핵정책의 기준을 미국식《가치관》에 두고있다. 즉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핵활동은 그것이 평화적인것이라 할지라도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여 크게 문제시하며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제재, 압력을 가하고있다. 지어 군사적공격까지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앞잡이, 하수인들의 핵무기개발은 적극 묵인, 비호두둔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가며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쳐 2부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에 우려를 표시할 때에도 유독 미국만은 극구 비호하여왔다.

오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등대고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지만 그들을 중동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써먹을것을 타산하고있는 미국은 그것을 모르는척 하고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무서운 핵야심을 가지고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비핵3원칙》이 완전히 유명무실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손아래동맹자의 행동을 못 본척 하고있다.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과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국제적인 핵전파를 방지하는데 실지 관심이 있다면 핵무기개발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개가 된다면 죽을 때까지 미국상전에게 꼬리를 흔들려는것이 쓸개빠진 남조선괴뢰들이다. 주구들은 강토를 핵전쟁의 불바다로 내맡기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핵전쟁전략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미호전세력들과 《맞춤형억제전략》이니, 《확장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미리 짜놓고있다. 《원자력협정》이 남조선괴뢰들을 어디로 떠밀겠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핵전파의 주범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이야말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핵범인, 지구상에 핵군비경쟁을 몰아온 최대의 장본인이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미국남조선《원자력협정》을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의 희생물이 된 나라들의 교훈은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것은 전쟁억제력을 강화해나가지 않고서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을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대답을 주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핵무력강화에 있다는 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된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더욱 천백배로 강화될것이다.

리 현 도

력사앞에 정직하고 인간앞에 성실하라

일본국민이 격노하고있다. 당국의 뻔뻔스러운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일제시기의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당국의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산업시설들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있던 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끌고가 노예로동을 강요하여 세운것들로서 여기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수가 수백명에 달한다, 더우기 식민지정책수행의 핵심인물들을 키워낸 교육시설을 산업혁명유산으로 신청한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약 3만 6 000명의 회원을 가진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정부가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도꾜의 국회청사앞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녀성들의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서명한 일본시민수는 26만명을 훨씬 넘는다. 갈수록 거세여지는 일본민심의 이러한 동향은 그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인류량심의 지향과 의지의 반영이다.

일본반동들이 한사코 숨기려 하는 과거죄행은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구태여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을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암흑속에 몰아넣고 극악무도하게 탄압살륙한 일제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하나하나 렬거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이른바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산업시설들과 더불어 이 섬나라가 덮고있는 《경제대국》의 비단이부자리에만도 얼마나 많은 조선인민의 피와 땀이 슴배여있는것인가.

일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일본의 고역장들에 끌려가 피와 땀을 빨리웠으며 수억만금에 달하는 조선의 재부가 일본으로 실려가 재벌들을 살찌웠다. 일제는 조선의 지하자원과 문화유물을 비롯한 물질문화적재부를 깡그리 략탈하다 못해 나중에는 놋으로 된 숟가락과 저가락까지 강탈해갔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에도 일본은 전쟁에 직접 가담하고 일본전령토를 미군의 병참기지로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고도성장》을 자랑하는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는 다름아닌 조선민족의 피와 땀, 재부로 축성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통치시기와 그 이후시기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적피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대최악의것이였다. 일본은 응당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국가적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을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제패망 70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과거죄행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부언하건대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력사가 략탈적인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아시아인민들을 살륙한 력사라면 후반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그 죄악을 흑막속에 묻어버리려 온갖 권모술수를 써온 력사이다. 일본에서는 《파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오며 외곡해온 범죄사실을 이제 와서 인정하는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행동으로 된다.》는 사무라이식《력사관》이 대두하고있다. 이에 따라 력대 일본집권자들은 주변정세와 세계의 눈치를 봐가면서 저마다 자기 식의 교묘한 수법을 써가며 과거의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숨겨오는 이중의 범죄를 저질러오고있다.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망발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조용한 마당에서 력사가나 전문가들이 론의해야 하며 정치문제, 외교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정치에 앞서 인간이 있고 외교에 앞서 진실이 있으며 법률에 앞서 량심과 도덕이 있다. 과거 일제가 력사에 전무후무한 추악한 성노예범죄를 저지른것도, 그것을 부정하는 일본반동들의 태도와 립장도 초보적인 량심과 도덕마저 줴버린 후안무치한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있다.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군국주의해외침략전쟁과정에 산생된것이다. 그런것만큼 그것이 범죄로 될수 없다는것이 배타주의와 군국주의찬미를 륜리로 아는 섬나라 정객들의 견해이고 관점이다. 궁극적목적은 과거 일제의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자는것이다. 일본에서 군국화에로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력사외곡의 도수가 높아지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일본당국이 과거범죄의 행적이 력력히 남아있는 일제시기의 산업시설들을 《문화유산》이라고 분칠하여 극구 선전하는것도, 국회마당에서 《자위대》의 세계진출을 합법화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강행추진되고있는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명명백백한 피의 행적을 외면한채 군국화에로 나아가는 일본을 보며 세계는 확언하고있다. 패망의 8.15를 맞은 일본군국주의가 그러했던것처럼 래일의 일본에 차례질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이제라도 일본당국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책임진 정치인의 자각이 있다면 우선 력사앞에 정직하고 인간앞에 성실해야 한다. 분노한 민심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배 금 희

우리 공화국정부성명을 지지하여

오스트리아단체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가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는 2015년 6월 15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되는 진지한 대화마련의 선결조건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중앙통신】

무능한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 26일까지 메르스에 의한 사망자는 31명, 사망률은 17.1%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 발생초기 한자리수에 머물렀던 이 병의 사망률이 6월 15일에는 10%를 넘어섰고 이제는 20%수준에 다가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을 휩쓰는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각계는 보수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속수무책》, 《락제수준》 등으로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사회전반이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적은 없었다.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응으로 온 남조선을 초상집처럼 만들어놓고도 미국행각의 꿈속을 헤매던 괴뢰집권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할수 없이 청와대에 주저앉은것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사회 각계는 《박근혜의 메르스방역성적표가 리명박〈정권〉과 비교해보아도 락제》라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지난해 5월 남조선에서는 외국려행에 의한 메르스감염위험을 주제로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경종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괴뢰당국이 팔짱끼고 그것을 외면해온것으로 하여 사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그만큼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이 외면, 무시당하였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의 더 큰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며칠전 새정치민주련합소속 의원 안철수는 《국회》에서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지휘판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권〉》이라는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민중이 집권자를 찾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남조선에 도대체 《정권》이 있긴 있는가고 개탄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바빠난 괴뢰집권자가 《불안을 확대》시키고 《심리적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하라느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니 하며 비난을 모면해보려고 꾀하였지만 소용이 없다.

괴뢰집권자를 조롱이나 하듯 메르스사태는 계속 확대되고 그 악영향이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고있다. 예상치 않게 당국의 감시대상밖에 있던 사람들속에서 환자가 련이어 발생하고 격리병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메르스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장담하던 괴뢰방역당국은 부랴부랴 《판단을 보류》한다는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사태가 경제적혼란으로 이어져 사회 각계는 더욱 아우성이다. 남조선의 중소기업연구원은 메르스사태의 심화가 개인소비상황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비중이 높은 봉사산업에 큰 피해를 주어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불안과 수출억제에로 이어지는 이른바 메르스불황이 초래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괴뢰당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세워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사과》놀음을 벌렸지만 격앙된 민심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일치하게 괴뢰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고있다.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괴뢰집권자의 사과를 사태해결의 첫걸음으로 보고있다. 보수계층속에서도 그 비률은 60%에 달하였다.

《〈정권〉의 무능과 부실대응으로 민중에게 엄청난 불안과 피해를 끼쳤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는가.》, 《책임회피를 위한 대리사과 거북하다.》, 《대국민사과도 민영화하겠다는것인가.》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새누리당》안에서마저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친 소리들이 튀여나와 청와대를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라지오방송에 출연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메르스대응실패의 책임이 병원측에 20% 있다면 당국의 책임은 80%이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현 괴뢰집권자는 각계의 사과요구에 등을 돌리고 검찰을 동원하여 새정치민주련합의 이전 대표 김한길에 대한 수사놀음을 벌리는가 하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민심의 이목을 분산시키며 뻔뻔스러운 망동을 일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세력들은 청와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않고 야당을 잡고있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특히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망동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모든 《국회》일정에 대한 전면거부를 선언하였다. 이로 하여 괴뢰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정국이 일대 수라장으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정국혼란을 빚어낸데 대해 《청와대가 정쟁을 유도하여 메르스정국을 덮으려는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을 휩쓸고있는 메르스사태는 인민을 등진 현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적악정, 《정권》안보를 위해 그 어떤 모략도 서슴지 않는 괴뢰집권자의 망동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비렬한 정탐행위 규탄

프랑스대통령 올랑드가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비렬한 정탐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가안전보장국이 프랑스의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들, 정부의 주요인물들을 대상으로 전화도청 및 감시행위를 감행해온 사실이 새롭게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해치는 용납할수 없는 해독행위로 단죄하였다. 이날 프랑스외무상은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미국가안전보장국이 감행한 정탐행위에 대해 설명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인권보고서》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6월 26일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무성이 자국내에서의 흑인탄압 등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비호두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란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인권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력과 내정간섭을 위한 도구로 리용할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권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위와 집회, 파업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6월 23일 반일시위가 벌어졌다.

이 나라 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과거 일제가 감행한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단죄하면서 일본과 군사적결탁관계를 맺지 말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긴축조치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령락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지하철도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6월 26일 또다시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지하철도경영권을 사영화하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지하전동차들의 운행이 중지되여 혼란이 조성되였다.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6월 25일 택시운전사들의 파업이 일제히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당국의 그릇된 긴축조치로 자기들의 처지가 더욱 령락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이췰란드에서 미국과 유럽동맹의 그릇된 협정체결시도를 반대하여 시위

다시금 드러난 세균전계획의 흉악한 정체

얼마전 남조선신문 《국민일보》가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오산미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탄저균만이 아니라 보툴리누스라는 독성이 매우 강한 세균까지 실험하면서 세균전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미제침략군이 탄저균실험에 이어 보툴리누스균까지 세균전실험에 리용하였다는 사실앞에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미제침략군의 세균전책동을 반대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산미공군기지에 대한 탄저균반입사건이 터져나오자 당황한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것은 《실수》로 인한것이며 시급히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저들의 범죄적인 세균전도발음모를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툴리누스균실험에 대한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미제침략군의 세균전도발음모의 진상은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세균전도발기도의 진상은 절대로 숨길수 없는것이다.

최근 남조선언론들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대한 탄저균반입사건은 단순한 배달사고가 아니라 미국이 《쥬피터계획》에 따라 극비밀리에 추진해온 세균전계획에 의한것이라고 폭로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2013년 6월부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서울의 룡산과 경기도 오산을 비롯한 여러 미군기지연구소들에서 《쥬피터계획》이라는 명칭아래 세균전도발을 위한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것도 《쥬피터계획》에 따른것이였다. 이것은 2013년 3월 미국의 한 군수산업체의 주최하에 진행된 화학생물학방어계획포럼이라는데서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자료에는 《〈쥬피터계획〉이란 남조선에서 미군이 생물학전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착수하는 군사적과제이며 이 계획의 독소분석 1단계 실험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이다.》라고 밝혀져있다. 이 모임에 참가한 미륙군의 생화학전관계자는 남조선의 룡산과 오산 등의 미군기지연구소들에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을 체계적으로 반입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쥬피터계획》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연구소들에는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세균들이 비밀리에 반입되여 세균무기연구개발에 리용되였으며 실험에 동원된 성원들에게는 탄저균면역접종이 실시되였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자료앞에서도 미국은 《실수》니 뭐니 하고 아닌보살을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세균전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가리우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한 우리 민족은 미제의 세균전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최근 국제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이 《남조선에서 확대되고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미국방성의 세균전실험의 산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신문은 글에서 세계적인 전염병인 메르스가 남조선에서 다른 양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것은 미국방성의 세균전계획에 의한 비루스연구와 관련되여있다고 폭로하였다.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반인륜적인 세균전도발음모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벌써부터 그 재난을 당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전의 범죄행위를 덮어버리기 위해 분주탕을 피우는 쓸개빠진짓만 하고있다.

언론들에 의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 온 남조선땅이 민족적격분으로 끓어번지였지만 괴뢰당국자들은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개선대책을 마련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나발들을 늘어놓았다. 괴뢰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미군당국에 《〈쥬피터계획〉의 정보공유와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협조해달라고 사정하는 낯뜨거운 추태를 부리였다. 이 얼마나 비굴한 식민지주구들인가.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없이 세균전도발계획을 거침없이 추진하고있는데도 그에 대해 항변하기는 고사하고 비호두둔하고 싸고도는 이런 역적무리는 보다 처음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의 세균전실험보다 더 공포스러운것이 현 보수《정권》이라고 울분을 터치고있겠는가.

조성된 사태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세균무기를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노리고 세균전, 화학전책동에 미쳐날뛰였지만 영웅적조선인민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쓰라린 참패의 교훈을 벌써 망각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백배로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반미대결전에서 총폭발시켜 가증스러운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찍을 놈조차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의지로 만장약되여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범죄적인 세균전도발계획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라 영 국

ㄱ-51102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